

지역 소식통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정읍시 '우수' 선정

정읍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공공하수도 시설 안정적인 운영관리, 에너지저장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방류수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상금)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차와 2차 현장평가를 진행했으며, 3개 분야 32개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부안군, 식품안전관리분야 유공기관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분야 업무 종합평가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공기관 선정은 식중독,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을 선정 표창한다.

군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유통식품안전성 수거검사, 식중독 발생 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음식물 위생등급제, 음식물개선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선제적으로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 1988개소에 대한 1회 이상 지도단속 강화와 식중독예방 사전진단 및 홍보활동 3584개소, 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군 158건 수거검사 등 식중독 발생률 제로화 달성에 기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연수원 건립 분양계약

정읍시·국민연금공단, 내장산문화광장 인근... '체류형 관광지 기반 구축 가속'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구축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으로 일일 20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인재개발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일일 20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인재개발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세계 3대 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1989년 9월 18일 설립되어 109개의 지사와 7,200여 명의 임직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기금적립액은 무려 834조를 보유한 세계 3대 연금이다.

연수원은 총사업비 413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부전동 일원 내장산문화광장 인근 부지 46,316㎡에 연면적 10,000㎡로 건립된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109개 지사에서 1일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7,200여 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하면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위원회 개최

군민과 함께 신나는 신활력 안심농산업 공유경제 프로젝트 개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0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추진위원회 위원, 추진단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권익현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군수 김종택, 부안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 이양수 등 8명의 추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 승인 사업부자, 감사 등 의사결정과정을 맡아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 군수는 "이번 사업은 bottom-up 방식의 주민주도형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부안의 새로운 혁신주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미중물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4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안 농산물 및 자본의 관내

순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부안안심농산업 공유유통지원센터 건립, 군민 거점 교류 공간인 신활력작교소 구축, 주민역량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아카데미 등 농촌 활력화 사업을 중점 발굴해왔다.

군은 ▲액선그림 텃밭학교 및 현장전문가 밀거름학교 ▲액선그림 맞춤형 비즈니스와 지원사업(3단계) ▲지역대표 농산물 상품화 ▲농산물 공동전처리 작업장 지원 ▲윈스톱 기업지원 ▲부안형 밀키트 개발 및 산업화 온라인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신활력공유기전 운영 등 다채로운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번사업에서 군은 '부안 안심농산업 공유유통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조성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간부회의 주제, 주요 현안 업무 점검

유진섭 시장이 20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유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과 사업소별로 다양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시한 후 철저한 업무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 구현을 위해 내년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발전기금'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능력개발과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의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

다.

이와 함께 사업 조기 발주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농폐기물 무단 배출과 불법 소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보호와 겨울철 산불 예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청 소속 유도선수단이 지난 13~16일 열린 '2021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자유도부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개인전 휩쓸고 단체전 준우승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서 최강팀 면모 과시

고창군청 소속 유도선수단이 지난 13~16일 열린 '2021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자유도부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선수단은 개인전 5체급에서 메달(금 2, 은 1, 동 2)을 휩쓸었고,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선수단은 "48kg 박은이 선수와 +78kg 엄다현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52kg급 하주희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57kg급에 출전한 서수빈 선수와 ?63kg급에 출전한 전예지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땀다.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올해 선수단은 모두 7개 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22개 메달(금 10, 은 8,

동 4)과 단체전 4개 대회에서 우승 1회와 준우승 3회를 차지하며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09년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을 창단해 현재 이주철 부군수를 단장으로 홍기문 경기지도자와 선수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수는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군민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2021년도에 선전을 이어가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꾸준히 훈련에 매진해 내년에는 더욱 향상된 기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고창군민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전국 최우수상

전북 고창군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주민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있다.

20일 고창군체육회(회장 오교만)에 따르면 '모양성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김영희 지도사)'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올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운영된 생활체육교실은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공원과 약수터·이파트 단지 등 야외 공간(장소)에서 전문지도자들이 체조와 에어로빅, 라인댄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9개소 중 고창군에서

1개소(모양성내 광장)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은 "처음에는 아침산책을 위해 모양성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무료로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니 즐겁다"고 말했다.

고창군체육회 오교만 회장은 "코로나19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 같다"며 "체육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